

■ 학생, 학부모, 교사 인권교육

학급 담임교사가 학생들의 생활인권교육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책무성과 지도성을 발휘하여 학생들의 능동적인 학교 적응을 돕고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문화를 조성하도록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방침으로는 학급 담임교사 중심의 학생생활인권교육 책무성을 강화하고 학기 초 학년 학급별 학생 생활인권교육 계획 수립 및 실천하며 적극적인 상담활동과 학급관리로 비행 및 각종 사고 예방을 하며 가정 및 관계기관과 연계한 다양한 생활인권교육방안을 모색하며 즐거운 학급공동체 형성을 위한 학급별 다채로운 활동을 전개해나가는 것을 중점 추진과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은 시대의 변화에 따른 학부모 및 학생의 학교교육에 대한 요구가 다양해짐에 따라 학생인권과 교사의 교권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인권조례 제 18조, 46조에 의거하여 학생들이 학칙 등의 학교규정의 제·개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학생인권의 신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 방편으로 학교에서는 다양한 교육계획을 수립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매 학기 2시간 이상의 학생인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인권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 및 타인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교과 내의 인권관련 활동을 수업과 연계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또 교사로 하여금 교원 인권교육, 토론회 등을 통하여 학생인권관련 연수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 학생인권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높이고 민주적이며 친인권적인 학교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적, 실질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이 학부모님 및 보호자의 인권교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학생들이 올바른 생활습관과 인성을 형성하여 바람직한 학교생활을 유지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마차의 두 바퀴와 같은 것입니다. 학교와 가정의 두 교육주체가 조화를 이룬다면 더욱 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인권조례에서 강조되는 사안 및 전년과 달라진 학교생활규정의 변경내용을 살피시어 자녀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기도 학생 인권 조례에서 강조되는 내용들입니다.

제 6 조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로 학교에서의 체벌과 학교폭력에서 자유로울 권리입니다. 교사들의 직접적, 간접적 체벌도 금지되었습니다. 학생선도의 경우에도 감정을 자제하고 체벌대체 프로그램을 적용하거나 학교규정에 따라 선도처분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학교폭력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활동을 전개하였음에도 학생들 사이에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학교가 1차적으로 개입하여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에게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는 등의 분쟁조정을 통해 당사자 간의 합의를 이끌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 9 조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 운영”으로 학생은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가지고, 학교는 각 교과협의회를 거쳐 학생의 학습수준과 수업효율성, 실천가능성, 접근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편성, 운용하며 이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제 12 조 “사생활의 자유”입니다. 학교 구성원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의 없이 해당 학생의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으나 그 이외에는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여 학생의 사생활의 자유를 가지게 한 것입니다.

“비난 받으며 자란 어린이는 욕하는 걸 배우고, 조롱 속에서 자란 어린이는 부끄러움을 배우고, 책망 받으며 자란 어린이는 죄의식을 배운다. 반면 용기를 얻으며 자란 어린이는 자신감을 배우고, 공정함 속에서 자란 어린이는 정의감을 배우고, 인정받으며 자란 어린이는 그 자신을 사랑할 줄 안다”고 하였습니다. 어떤 학자는 인권교육에 관하여 이야기 할 때 인권의 의미를 배우는 ‘인권에 대한 교육’과 인권적 교육환경 조성을 바탕으로 한 ‘인권을 통한 교육’, 인권을 지키고 보장하기 위한 ‘인권을 위한 교육’으로 나누어 이야기 합니다. 학교에서 이뤄지는 교육은 인권에 대한 교육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가정이야말로 우리 아이들이 가장 처음으로 접하는 공동체이며, 그 공동체의 문화에 따라 아이들의 인권의식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가 자라면서 소리 지를 일이 늘어납니다. 때로는 달래고, 때로는 욕박지르기도 하지만 항상 ‘아이의 의견을 존중하기’보다는 ‘빠른 해결’이 우선시 되곤 하는 것이 일반적인 부모님의 반응입니다. 가령 아이가 끓는 찌개에 관심을 보여 손을 뻗으려고 하면 우리는 아이의 손등을 때려 겁을 주기도 하고, 아예 아이의 눈에서 치워버리거나, 다른 장난감을 보여 관심을 돌리는 경우 등의 여러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전문가의 의견으로는 위에 표현한 보기들이 세상을 탐색하는 아이의 욕구를 꺾어버리는 일이라고 합니다. 아이에게 “이게 뭔지 궁금해?” 하며 찌개 그릇에 살짝 손을 대보게 하는 것이 아이의 욕구를 존중하면서도 아이를 위험에서 보호하는 최선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의 안전을 위해, 교육을 위해 그들의 존엄과 욕구를 무시하는 말과 행동을 자주합니다. 금지하고 위협하는 독재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독립적인 인격체로 존중하면서 스스로 갈 길을 찾을 수 있는 안내자가 될 것인가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가만히 있지 못하는 아이들>(크리스 메르코 굴리아노 지음, 조용주 옮김, 민들레), 사랑답게 아름답게>(차병직 지음, 바다출판사) 등의 도서를 추천합니다. 학교나 공공기관을 통한 상담도 추천합니다.

자살예방상담센터	한국생명의 전화	http://www.lifeline.or.kr
인터넷 중독 상담	한국청소년상담원	http://www.kyci.or.kr
	인터넷 중독 예방상담센터	http://www.iapc.or.kr
	보호자정보감시단	http://www.cyberparents.or.kr
금연상담	송탄보건소	
	청소년흡연음주예방협회	http://www.ynsa.or.kr
	청소년종합정보서비스	http://www.all4youth.net
학교폭력상담	평택교육청 Wee센터	
	이충중학교 학생생활인권부	
성폭력 상담	117학교여성폭력피해자 긴급지원센터	http://www.117.go.kr
	여성긴급전화	http://www.ky1366.or.kr
	한국성폭력상담소	http://www.sisters.or.kr

학 교 폭 력 예 방 대 책

1.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새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유형 : 신체적 폭력, 언어적 폭력, 관계적 폭력(따돌림)

2. 학교폭력에 노출된 자녀의 징후

학교폭력의 피해를 당했거나 당할 가능성이 많은 자녀는 다음과 같은 행동 징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 애완동물을 심하게 학대한다.
- 몸에 상처나 멍 자국이 있다.
- 작은 일에도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다.
- 집에 돌아오면 배가 고프다고 폭식을 한다.
- 쾌활하던 자녀가 말이 없어지고 우울한 표정을 띤다.
- 짜증을 자주 내고, 부모에게 공격적으로 대항한다.
- 일기장, 메모 등에 폭력적인 그림이나 낙서가 있다.
- 밤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잠꼬대를 앓는 소리를 한다.
- 사주지 않은 물건을 가지고 있으며, 친구에게 받았다고 한다.
- 부모와 대화 중 눈길을 피하며 간섭하는 것을 싫어한다.

3.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

- 심리상담 및 조언
- 일시보호
-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학급 교체
-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4.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 조치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 학교에서의 봉사 또는 사회봉사
- 특별교육을 이수 또는 심리치료
- 출석정지, 학교교체, 전학
- 학부모 특별교육(불응 시 과태료 부과)

5. 학교폭력 피해자녀 대처 방법

- 자녀에게 충분한 공감과 지지해주기
- 자녀가 잘못된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이해 시키기
- 감정을 조절하여 자녀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며 대화하기
- 피해 사실을 명확히 하고 가건에 대한 증거자료 확보하기
- 담임교사에게 학교폭력 상황을 알려 도움을 요청하기
- 위급할 경우 117학교폭력신고센터에 신고하기

117학교폭력신고센터

117[전화], #117[문자], www.safe182.go.kr

학교폭력 예방 홈페이지: stopbullying.or.kr

6. 따돌림에 노출된 자녀의 징후

- 늦잠을 자며 학교에 가기 싫어한다.
- 사사건건 신경질적으로 반응한다.
- 머리카락 등이 자주 아프다고 호소한다.
- 급식을 먹지 않았거나 혼자 먹었다고 이야기한다.
-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면 별일 아니라고 둘러댄다.
- 종종 몸에 상처가 있거나 옷이 찢어져서 집에 돌아온다.
- 초조한 기색과 무언가 두려워하는 것 같이 지적한다.

- 용돈이 적다고 투정부리고, 부모의 지갑에 손을 댄다.
- 교과서가 없거나 책상, 노트, 가방 등에 낙서가 있다.

7. 따돌림 피해 자녀 대처방법

- 자녀와 자주 대화하고, 귀 기울여 들어주기
- 따돌림을 당한 사실[이유,가해자,상태]을 확인하기
- 자녀의 분노를 자연스럽게 표출하도록 도와주기
- 자녀에게 함께 노력하여 이겨내자고 말해주기
- 자녀가 긍정적 사고로 희망을 갖도록 용기를 주기
-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을 함께 상의하고, 믿음을 주기
- 담이교사와 상의하여 전문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기

8. 따돌림 가해 자녀 대처방법

- 문제 해결을 위해 상황을 내정하고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 “내 아이도 그럴 수 있다” 는 생각을 가지기
- 자녀가 보인 폭력적 행동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기
-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도와주기
- 잘못된 행동은 지적하되 다정한 말로 지도하기
-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자녀의 학교생활을 살피보기

자녀의 메모나 휴대폰 사용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자녀와 어울리는 친구의 멘토가 되어 주세요

자녀의 단짝 친구를 파악하고, 상대 부모님과 상호 전화하세요.

9. 언어폭력이란?

위협적이고도 저속한 말이나 욕설 따위를 함부로 하여 상대방에게 두려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일, 특히 신체적인 약점을 지적하며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주는 일, 선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일로 상대방이 상처받도록 하는 말장난 등이 모두 언어폭력에 해당됨.

유형 : 욕설하기, 위협하기, 저주 헐뜯하기, 신체 외모 놀리기, 이상한 소문 내기, 싫어하는 별명 부르기, 빈정거리기. 비웃기[희롱,조롱], 비난의 문자 보내기 등

10. 유소년기에 욕설하는 이유

- 강하게 보이기 위해서
-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여서
- 또래끼리의 친근감을 표시하기 위해서
- 화가 난 상황에서 당장 분을 삭이기 위해서
- 습관화되면 기분이 좋아도 욕을 하게 됨.

부모의 언어가 자녀 언어생활의 거울입니다.

고운 언어 사용, 부모님이 모범을 보여 주세요!

더 많이 경청하고, 더 적게 말하세요!

따뜻한 말도 해 주세요!

청소년 성폭력, 사이버폭력 예방

1. 성폭력 예방은 자녀와의 대화로부터

- 일상생활에서 자녀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 평소에 자녀와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대화를 많이 나누기
- 부모는 어떤 경우에도 자녀를 보호하고 책임진다는 것을 알게 하기
- 성 문제에 관한 자녀의 감정을 존중하기

성과 성폭력을 주제로 자녀와의 소통을 시도해 보세요.

뉴스나 드라마 등과 관련하여 자연스럽게 말해 보세요.

2. 성폭력 통념 버리기

- 성폭력은 낯선 사람에 의해 발생한다?
⇒ 74% 아는사람, 13%는 가족간에 의해 발생
- 끝까지 저항하면 성폭력은 불가능하다?
⇒ 계획적으로 유인하여 저항하기 어려움
- 장난이데 어울린다?
⇒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여부가 가장 중요함
-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
⇒ 성폭력의 책임은 오로지 가해자에게 있음

3. 성폭력 피해자녀 대처방법

- 자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믿어주고, 감싸주기
- 자녀의 표정, 행동 등을 관심있게 살펴보기
- 성폭력 발생 냉용에 대한 자녀의 말을 그대로 기록하기
- 성폭력은 자녀의 잘못이 아님을 분명히 알려주기
- 임의로 사건 해결하지 말고 전문기관에 도움 요청하기

117 신고센터, one-stop지원센터, 성폭력상담소 여성긴급전화[1366]

성범죄자 알람 e-사이트[www.sesoffender.go.kr]

해바라기아동센터[www.forchild.or.kr]

학교폭력SOS지원단[1588-7179]

4. 자녀의 사이버 폭력 징후

- 악성 댓글을 자주 단다.
- 주변 사람들의 다이드를 함부로 사용한 적이 있다.
- 휴대폰 문자, 카톡, 블로그나 카페관리 등에 집착한다.
- 허락없이 사지을 온라인에 올린 적이 있다.
- 협박성 욕설 문자나 이메일을 보내거나 받은 적이 있다.
- 주변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쪽지를 본 적 있다.
- 평소 인터넷 채팅용어를 자주 사용한다.
- 온라인상으로는 말을 잘하지만, 실생활에서는 말이 없다.

5. 자녀의 사이버 폭력 징후

- 피해자는 증거를 확보하고 담임교사, Wee클래스, 전문기관 등에 도움 요청하기
- 가해자는 전문기관에 도움을 받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느끼도록 지도하기
- 사이버 예절과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도록 가르치기

실천하기

폭력적인 게임이나 영화 멀리 하기

디지털 기기를 사주기 전에 신중하게 지도하기

자녀와 인터넷의 장점과 단점에 대하여 대화하기

컴퓨터는 가족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실에 설치하기

인터넷게임, 채팅, 블로그, 휴대폰 메시지도 관심 갖기

6. 자녀가 미디어에 중독되기 쉬운 가정

- 대화가 없는 가정일수록...
- 간섭이 많은 부모일수록...
-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가정일수록...
- 애정표현이 없는 부모일수록...
- 긴 시간 컴퓨터 게임을 즐기는 부모일수록...

“각자무치“ 라는 말이 있습니다.

뿔이 있는 짐승은 이가 없다는 뜻으로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재주를 다 가질 수 없음을 이릅니다.

사람은 자신의 재능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소나무 보고 대나무가 되라고 한다거나 호랑이를 토끼처럼, 사슴을 사자처럼 살라고 한다면 자신의 재능을 살리는 행복은 없을 것입니다.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고

자녀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으로 살려주고, 관심, 배려, 모범, 공감, 소통, 존중으로 아이들이 자신의 품성에 맞게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교육 방법일 것입니다.